

1천회 맞은 '개그콘서트'... "초심 돌아가야" 쓴소리

한때 스타비 원더의 '파트 타임 러버' (Part Time Lover)가 '월요병' (월요일마다 피로가 느껴지는 증상) 노래의 대명사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매주 일요일 밤, KBS 2TV '개그콘서트' (이하 '개콘')의 엔딩곡인 이 곡이 들리면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과 학생들은 이제 주말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1999년 9월 1회 방송을 시작한 '개콘'이 오는 19일 방송으로 어느덧 1천회를 맞았다. 역대 최장수 코미디 프로그램이자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원조로, '갈갈이 삼형제', '마백아', '대화가 필요해', '분장실의 강선생님', '달인', '봉숭아 학당' 등 무수히 많은 히트 코너와 스타 코미디언을 낳았다.

'개콘'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개그맨 전유성(70)은 13일 오전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개콘' 1천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콘이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행사엔 김미화(55), 김대희(45), 유민상(40), 신봉선(39), 강유미(36) 등도 참석했다.

한때 시청률 30%도 넘는 시절이 있지만, 최근엔 수년째 한 자릿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개콘'의 부진에 대해 그는 "대학로에서 검증받은 코너들을 TV로 끌고와 성공을 했는데 점점 검증 없이 TV에서만 재밌다고 방송을 결정하는 게 나태해지고, 식상한 감을 갖게 되지 않았나 한다"라고 진

전유성 "이젠 나태·식상"... 제작진 "웃음 본질 고민하는 계기" 제작진·출연자들 일제히 "현재 트렌드 맞추기 위해 노력 중"

단했다. 원로인 그는 지금까지 '개콘'을 거쳐 간 제작진에 대한 불만을 내놨다. "나한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는 PD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도 없었다"며 "충분히 '개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찾아오질 않더라. 물어보시면 대답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개콘'은 한때 화제 코너는 직장인, 초등학교 할 것 없이 유행어를 줄줄이 따라 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최근엔 트렌드에서 뒤처진 형식과 외모 비하·가학성 논란으로 인한 지속적인 부진에 시달린다.

이러한 위기 속에 1천회를 맞는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진과 출연자들은 한결같이 '개콘'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재 PD는 "과거에 못 미치는 건 알고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며 "구체적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 저도 답답하고 같이 하는 개그맨들도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개콘'을 부흥기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나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원 PD는 "다양한 방법이 많지 않다. 그게 늘 고민"이라며 "솔직히 공개 코미디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개콘'이 공개 코미디를 떠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개콘'이 지속적인 외모·여성·특정 직업군 비하로 점차 시청자들 외면을 받은 데 대해선 "최근 '개콘'엔 그런 내용은 없다"며 "짙어져야 하는 숙명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다던 개그 소재로 삼지 않겠다"고 답했다.

전유성, 백재현, 켈투 등과 함께 '개콘' 창시 멤버인 김미화는 "개콘이 처음엔 신선했지만 한 20년 정도 지나오니 식상할 수도 있다"면서도 "공개 코미디가 오늘날 안 맞는 건 아니라고 본다. 조금 더 시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형근 PD는 "KBS는 공영방송"이라며 "트렌드에서 뒤처진 듯한 공개 코미디와 콘텐츠가 오늘날 지니



'개콘' 출연자와 제작진

/KBS 제공

는 의의를 강조했다. 박 PD는 "이들 장르는 대중문화사에서도 중요하고 KBS가 시청률이 안 나온다고 포기하는 건 외려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는 거라고 본다"며 "더욱더 한국 코미디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간 '어떻게 웃길까'만 고민했지, '어떤 웃음을 줘야 하나, 어떤 웃음이 필요한가'라는 웃음의 본질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못 했다"며 "어쨌든 사람을 웃겨야 한다는 코미디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1천회를 기점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화 염원 시민 합성 오케스트라로 재탄생

광주시립교향악단 18일 문예회관에서 '5·18 기념음악회' 개최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8일 저녁 7시 30분 광주문예회소홀관 대극장에서 제343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5·18 기념음악회;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다. 슬픔의 역사이자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 밑거름이 된 자랑스러운 역사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제 39주년을 맞아 슬픔과 기쁨이 함께 머무는 기념연주회를 선사한다.

뜻깊은 이번 음악회를 위해 세계적 마에스트로 광주시향 김홍재 상임지휘자가 포디엄에 오르며 프랑수아 바이올린의 계보를 잇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함께한다.

음악회의 첫 곡은 황호준 작곡가의 '님을 위한 서곡'이다. 한국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한 곡이다.

2018년 광주문화재단의 '님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 및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위촉됐다.

BBC 필하모닉, 베를린 심포니,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시드니 심포니 등 세계적 오케스트라의 협연 무대에 올랐다. 피아니스트 장 위보와 함께 소나타를 녹음하는 등 활발한 음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파리 국립 고등음악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광주시향은 매 정기연주회가 시작되기 40분 전, 대극장에서 공연해설 프로그램 클래식토크를 운영한다.

작곡가 강보람이 해설자로 나서며 티켓을 소지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해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음악으로 통해 기리고 있는 이번 음악회의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만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062) 524-5086 로 하면된다.

/유조운 기자 yuzy@

TV 안내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	6	00 MBC 뉴스투데이(1) 25 MBC 뉴스투데이(2)	00 모닝와이드(1부) 30 모닝와이드(2부)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부)	7	50 용왕님 보우하사	40 모닝와이드(3부)	00 너티너츠 30 고고다노 공룡..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 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강남스캔들	00 당동맹 유치원 1 45 방귀대장 뽕뽕이
30 KBS 뉴스	00 여름아 부탁해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뽕뽕뽕 뽕뽕로 40 극한직업 스페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5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 풍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UHD 현식의 마음	00 국민 여러분	11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테마기행(재)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55 회사 가기 싫어 2019	12	00 12 MBC 뉴스 25 경성판타지 (울산M)	00 SBS 12 뉴스 50 초면에 사랑합니다	00 EBS 정오뉴스 10 미래교육 플러스
00 KBS 네트워크 특선 50 한국인의 밥상		1	25 헬로키즈 산비탈자연.. 55 2시 뉴스 외전		00 다큐 오늘 40 사건브리핑안전..
40 KBS 창작동요대회.. 4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2		00 뉴스브리핑	30 정글에서 살아남기
00 가요무대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3	25 에어로버 55 뽕뽕뽕 모두아 놀자		00 마사와 곱 스페셜 45 문카트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 (재)	4	55 실화탐사대 스페셜	00 접속! 무비월드	15 짹과 팡 45 당동맹 유치원 1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	00 다큐멘터리 3일	5	55 생방송 오늘 저녁	00 SBS 오뉴스	05 당동맹 유치원 2 45 띠띠뽕 띠띠뽕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6	50 용왕님 보우하사	00 영재 발굴단	00 특! 특! 보니 하니
00 KBS 뉴스 7 40 이웃집 찰스	50 원소잡이 아내	7	30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투데이	00 미니특공대 X 30 EBS 뉴스
30 여름아 부탁해	30 글로벌24 55 국민 여러분	8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55 본격 연예 한밤	40 세계테마기행
00 KBS 뉴스 9		9			30 한국기행 50 특집 다크
00 시사기획 창 55 오늘밤 김제동	00 국민 여러분	10	00 특별근로감독관 조장 풍	00 초면에 사랑합니다	45 건축탐구 - 집
35 UHD 숨터 40 거리의 만찬	10 회사 가기 싫어 2019	11	10 PD 수첩	10 불타는 청춘(1부) 50 불타는 청춘(2부)	55 모두의 모바일 MOMOE
30 KBS 뉴스 40 KBS 결장 다큐멘터리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김영철의동네한반귀	12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라인	25 지식체널e (2) 30 한국영화특선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속 시원한 사주 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5월 14일 (음력 4월 10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子	60年生: 뜻밖의 약속이라도 흔쾌히 받아들이다. 72年生: 컨디션이 좋을 땐 조금 무리해도 좋다. 84年生: 주도면밀하기 보다 흘러가듯 지켜보자. 96年生: 입이 무거워야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다.	午	66年生: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해봐도 좋겠다. 78年生: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길은 있다. 90年生: 무엇이든 본인을 중심으로 생각 말자. 02年生: 귀찮은 일이 많지만 성심껏 해야한다.
丑	61年生: 돈도 쓸 때는 확실하게 쓰는 것이 좋다. 73年生: 부하직원의 은공을 볼 수 있는 날이겠다. 85年生: 고민은 빨리 털고 해결점을 찾아야한다. 97年生: 마음이 흔들린다면 믿음의 문제이다.	未	67年生: 조급없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79年生: 뒷사람과 차 한잔의 여유 시간을 가져보자. 91年生: 먼저 자존심을 접고 고개를 숙인다면 여러모로 편하게 원하는 것을 얻겠다.
寅	62年生: 이성과의 마찰은 저주는 것이 상책이다. 74年生: 고정관념이 다른 일도 못하게 한다. 86年生: 진정 도모되는 이 하나 없으니 정리하자. 98年生: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 또한 곱다.	申	68年生: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상대방 일을 돕는 것보다 본인의 일부터 철저히 하라. 80年生: 아직 마음을 놓기엔 이르니 긴장하자. 92年生: 본인의 권위만을 내세워서는 안 좋다.
卯	63年生: 지금의 기운을 믿고 적극적으로 행하자. 75年生: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지켜라. 87年生: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값어치를 높인다. 99年生: 나의 경험을 믿고 자신있게 행동하자.	酉	69年生: 가장 중요한 자산을 건강임을 잊지 말자. 81年生: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게 상책이니 결정할 일은 내일로 미루자. 93年生: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도 그려려니 하자.
辰	64年生: 부단히 노력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 76年生: 돈에 관한 일은 매정하게라도 거절하자. 88年生: 주도면밀해도 어딘가에 허점이 생긴다. 00年生: 새로운 것보다 지금의 것을 소중히하라.	戌	70年生: 오늘은 특히나 긴장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하루를 가꾸어 운을 부른다. 82年生: 새로운 일에 대한 추진은 신중히 하라. 94年生: 현재 상황에 맞는 기대를 가져야한다.
巳	65年生: 예지 못한 소식으로 경사를 맞이한다. 77年生: 집 밖의 외출은 삼가는 것이 유리하다. 89年生: 손뼉도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01年生: 처음 만나는 사람의 경계는 꼭 필수다.	亥	59年生: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내 의견을 말하라. 71年生: 잘 된다고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지마라. 83年生: 부모님 경험에서 나온 말은 틀린게 없다. 95年生: 자기 발전을 위해 배움을 멀리하지말자.